

Weekly Brief
R&I trends in **Europe**

KERC R&I News

EU 연구혁신 정책 및 연구 동향

2024.03.13.

Content

▶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 ① 한국,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 타결 임박(3.11)
- ② EU,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사이버연대법에 합의(3.6)
- ③ EU 집행위, 유럽방위산업전략(EDIS) 및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 제안(3.7)
- ④ 유럽대학동맹 이니셔티브, 500개 이상 대학의 60개 동맹으로 확대(3.7)
- ⑤ 그리스, Horizon Europe 참여확대국 중 참여 최상위 기록(3.6)
- ⑥ EU, 이사회, 집행위에 스위스와의 미래 관계에 대한 협상권한 부여(3.12)
- ⑦ 유럽보건데이터공간(EHDS) 협상, 주요 걸림돌은 보건 데이터 공유에 대한 환자 동의(3.12)
- ⑧ 우크라이나 과학 인프라 시설 피해 비용 12억 달러 초과(3.12)

▶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 ① 집행위, 유럽의디지털10년 주요성과 팩트시트 발간(3.8)
- ② 집행위 DG RTD, 에너지 부문의 성균형을 위한 평가 보고서 발간(3.8)
- ③ 유럽대학연합(EUA), 박사후연구원을 위한 프로파일, 역할 및 제도적 지원에 대한 보고서 발표(3.11)
- ④ KOTRA 브뤼셀 무역관, EU 반도체 산업 및 규제 동향 발간(3.13)

▶ EU 연구성과

- ① (성공사례) 유럽 오페라에 새로운 목소리를 불어넣는 이민자와 재소자들
- ② (연구모음)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문화와 문화유산 보존



1.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① 한국,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 타결 임박(3.11)

- 지난 3월 5일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고 발표
 -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내년부터 호라이즌 유럽에 가입해 기여금을 일정부분 내면 연구자들이 유럽연합의 연구비를 직접 따내서 연구할 수 있다”고 말함
 - 오는 10월 준회원국 가입이 될 경우, 내년 '25년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 참여가 시작될 전망

<출처 : <https://euraxess.ec.europa.eu/worldwide/south-korea/news/korea-become-associate-member-horizon-europe-next-year-presidential>>

<출처 : <https://www.researchprofessionalnews.com/tr-news-europe-horizon-2020-2024-3-south-korea-deal-on-horizon-europe-seems-imminent/>>

- 이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준회원국 가입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확인
 - 대변인은 “호라이즌 유럽 필라2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에 관한 협상을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는 것이 양측의 입장”이라고 전함
 - 이에 더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3월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리아나 이바노바 연구혁신 집행위원을 만나 양자 교류를 가질 예정
- 한편, 한국은 반도체 등 분야에서 기술리더십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국제 과학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한국과 EU는 이미 Horizon Europe 내 반도체 분야에서 공동연구 제안을 요청하는 등 다른 형태의 협력을 진행 중
-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가입할 경우, Horizon Europe에 가입한 아시아 최초 국가가 될 것
 - 지난 2월 EU와 한국은 Horizon Europe 참여 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해 서울에서 공동행사를 개최하는 등 양측은 이미 한국 연구자들이 Horizon Europe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 워싱턴DC에 방문하고 있는 집행위 DG RTD 부총국장 Ratso 수석협상가는 한국과는 '25년 1월 1일부터 호라이즌 유럽 필라2에 합류하는 것을 두고 협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의 재정적 기여가 협상의 일부라고 말함
 - Ratso는 AI와 양자 같은 구체적이고 민감한 기술 등 협력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은 한국과의 공식 가입 협정의 일부가 아니며, 개별 Horizon 워크프로그램에 명시될 것이라고 언급
 - ※ Ratso는 EU-US 과학 관계에 관한 공동 협의 그룹의 두 번째 회의를 위해 워싱턴DC에 방문, 미국이 Horizon Europe에 가입할 가능성은 없으나 더 많은 대서양 횡단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연구 프로그램 조정을 위해 공통 우선순위를 논의
 - Ratso는 신규 준회원국이 프로그램 우선순위와 정책에 대한 투표는 할 수 없으나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EU 회원국의 관련 위원회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확인, 이를 통해 준회원국은 자신의 의견을 포현할 수 있으며, 같은 생각을 가진 EU 회원국들과 동맹을 구축할 수 있다고 언급
 - ※ 더불어 Ratso는 일본과 싱가포르도 가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임
 - ※ 스위스의 경우 최근 EU와의 관계 진전을 위한 회담이 공식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25년부터 전체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출처 : <https://sciencebusiness.net/news/horizon-europe/south-korean-association-horizon-europe-imminent>>

2 EU,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사이버연대법에 합의(3.6)

○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기존 사이버보안법(CSA) 개정 및 새로운 사이버연대법 제정에 합의

- 집행위원회는 '23년 4월 사이버보안 위협 및 사고를 탐지, 대비, 대응하기 위해 EU 차원의 연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연대법 제정과 사이버보안법(2019) 개정을 제안
- 이번 잠정 합의에 따라 두 사안은 각각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채택 후 EU 공식 저널에 게시된 후 20일 후에 발효

○ 사이버연대법(Cyber Solidarity Act)

- (목표) 새로운 사이버연대법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EU의 탄력성 및 대응력을 강화하고 EU 차원의 협력 시스템 확립을 지원

- 영향력 있는 사이버 사건이나 대규모의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인식 확립 및 탐지 지원
- 병원, 공공 기관 등 주요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보호 및 대비 강화
- EU 회원국 간 공동 위기 관리 및 대응력 강화 등 EU차원의 연대 증진
- EU 시민 및 기업에 안전한 디지털 환경 제공 지원

- (내용1) 사이버연대법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이버 위협 탐지를 위해 '사이버보안 경보 시스템'을 마련, EU 내 사이버 허브들로 구성된 범유럽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
- 이 사이버 허브들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탐지 및 대응을 전담하고 관련 정보공유를 담당하여 기존의 유럽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이 주요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내용2) 사이버연대법은 대규모 사이버 사고에 대한 대비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사이버보안 비상 메커니즘'을 구축, 다음 세 가지를 지원:

- ① 준비 조치: 잠재적인 취약성에 대해 보건이나 에너지를 포함한 중요한 부문에서 운영되는 기관의 준비 테스트를 조정
- ② 사이버보안 예비서비스(reserve): 대규모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입할 준비가 되어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공업체의 사고 대응 서비스
- ③ 상호재정지원: 대규모 사이버보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다른 회원국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회원국을 지원

- (내용3) 사이버연대법은 EU의 사이버보안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공하고 대규모 사고를 검토하기 위해 '유럽 사이버보안 사고 검토 메커니즘'을 구축
- 이는 사이버보안 비상 메커니즘에 따른 조치의 효율성과 사이버보안 예비서비스의 사용뿐만 아니라 이 법이 기업의 산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적 입지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지 평가

○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개정

- (목표) 이번 개정은 EU의 사이버탄력성 강화를 위한 '관리형 보안 서비스'에 대한 유럽 인증 제도 채택을 목표로 함
- (내용) '유럽인증제도' 채택은 품질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서비스 제공업체의 출현을 촉진하며, EU 내부 시장의 파편화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
- 아래의 합의 사항이 '24년 6월 28일 예정인 정기 검토에서 논의될 예정:

- '관리형 보안 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개정된 NIS2 지침 적용
- 유럽인증제도 구축 목표를 현행 사이버보안법 규정에 따른 다른 체계의 보안 목표와 부합하도록 조정
- 모든 관련 행위자에 대한 유럽사이버보안청(ENISA) 자문이 적시에 수행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집행위나 ENISA가 인증제도의 기능에 대해 관련 공동 입법자들에게 분기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출처: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1332>

<출처: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05/cyber-security-package-curial-and-paljan-art-strike-deals-to-strengthen-cyber-security-capacities-in-the-eu/>>

3 EU 집행위, 유럽방위산업전략(EDIS) 및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 제안(3.7)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 EU 집행위는 5일(화) 유럽 방위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및 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유럽방위산업전략(EDIS)' 및 전략 달성을 위한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을 제안

- 유럽방위산업전략(이하 'EDIS')은 美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참고로, 냉전 이후 투자가 부진했던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EU 방산 단일 시장 활성화 및 유럽 방위 분야 재산업화 촉진이 목적
- 또한, EDIS는 유럽 방위산업의 현재 및 미래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미래 방위산업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이하 'EDIP')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다음의 세부 목표 달성을 추진

- ① 기 시행 중인 정책 수단을* 통해 회원국의 방위 물자 수요를 통합하고, 방위 물자 등 방위 역량 조달 단계에서 회원국 간 협력을 확대
* 역량개발계획(CDP), 연례방위검토(CARD) 및 항구적협력체제(PESCO) 등
- ② 유럽 방위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 역내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최첨단 기술과 제품 개발에 대한 정부 및 방산 업계의 투자를 확대
- ③ 새로운 안보질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회원국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유럽투자은행(EIB)의 대출정책 등 각종 정책 입안 시 안보적 요소를 반영
- ④ EU의 각종 방위산업지원 이니셔티브에 우크라이나를 참여시켜 EU와 우크라이나 간 방위산업 협력을 촉진, 방위산업 분야의 국제 협력을 확대

- 특히, EDIS는 유럽 방위산업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
 - 2030년까지 회원국 방위 장비 수요의 최소 40%를 역내 공동 조달을 통해 확보
 - 2030년까지 EU 역내 방위 물자 교역액을 EU 방산시장 가치의 최소 35%로 확대
 - 2030년까지 회원국 방위 물자 조달 예산의 최소 50%를 EU 역내에서 조달하고, 2035년까지 동 비중을 60%로 확대
- EDIP는 유럽의 방위산업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23년에 채택, 2025년에 완료하는 단기 긴급조치들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프로그램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유럽 방위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방위산업이 현실의 도전에 부합하도록 개편을 촉진

- 집행위는 EDIP 시행을 위해 EU 예산에서 총 15억 유로를 회원국 간 방위 물자 공동 조달 지원 비용 및 방위 물자 생산 역량 확대 등에 지원할 예정
 - 그 외에도 '유럽방위기금(EDF)' 지원 연구개발협력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산업화 지원, '방위물자 공급망 전환 촉진 기금(FAST)' 조성 및 방산 분야 중소기업의 부채 및 자본시장 접근성 촉진 등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와의 방위산업 협력 확대를 지원할 예정
 - 특히, 방위산업 지원 자금과 관련, 향후 동결된 러시아 정부 자산을 통한 과생 수익을 EDIP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 또한, EDIP의 일환으로 회원국 간 방위 장비 협력 확대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유럽군비프로그램구조(SEAP)*' 구축을 제안
- * 'SEAP (Structure for European Armament Programme)'는 방위 장비 공급망 안보를 위한 EU 차원의 체제로 모든 방산물자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방위 물자 접근성을 유지하는 게 목표
- EDIP는 회원국 간 방위산업 협력 확대 및 EU 방위산업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방위산업대응력이사회(Defence Industrial Readiness Board, DIRB)' 구성을 제안
- 한편, 집행위는 EDIP의 구체적인 조치로는 방위 물자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매칭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지원금 및 대출금 등 금융 지원과 회원국 협력에 기반한 EU 방산시장 개편 등을 추진
- 또한, 방산물자 공동 조달, 전략 재고 비축, 즉시 생산 가능 역량 확보, 방산시장 우선 주문 변경, 취약점 도식화, 제품 카탈로그 등에 재원을 지원할 예정
 - 특히, 정부 등의 방산장비 등 증산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구매 계약을 통한 미래 불확실성 제거가 필요하다는 방산 업계의 요구에 따라, 집행위는 회원국의 방산물품 공동구매 및 계약을 추진, 미래 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

<출처 : <https://kba-europe.com/board/kba-daily-hot-line/?uid=24397&mod=document&pageid=1>>

4 유럽대학동맹 이니셔티브, 500개 이상 대학의 60개 동맹으로 확대(3.7)

- 유럽연합은 다국적 협력 강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9개 기관으로 구성된 대학동맹에 최대 500만 유로의 Erasmus+ 자금을 제공
 - 대학동맹(Alliance)의 목표는 국경을 넘어 대학 간 연대를 심화하고 우수성과 포용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럽 고등교육 시스템의 성과와 국제적 경쟁력 증진, 실질적인 공동 교육 프로그램의 개시를 통한 장기 협력 전략을 수립, 혁신적인 고등교육 관행을 개발하기 위한 자원 통합 등을 목표로 함
- 연구에 따르면 초기 동맹은 주로 EU 15개국의 '우수한' 기관들로 구축되었으며, 서로 유사한 유형의 기관들끼리 동맹을 구성
 - 스위스 루가노 대학의 연구원 Lambrechts와 Cavallaro는 최근 발표한 [연구\("24.01\)](#)에서 유럽대학동맹에 참여하는 기관 유형을 분석
 - 연구원들은 동맹에 참여하는 대학들의 우수성 점수와 상하이 대학이 발표한 세계대학학술랭킹(ARWU)을 연계하여 분석, 초기 연합은 유럽 고등교육기관의 '기존 위계를 재생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
 - 초기 동맹은 지리적으로는 잘 분산되어있었으나 주로 '우수한' 기관들이 참여하였고, 최근에도 기관의 유형은 여전히 치우쳐 있으나 이전보다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음
 - 유럽의 모든 고등교육기관 중 절반만이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반면, 동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관들은 박사학위를 수여
- 현재의 동맹은 여전히 유럽 고등교육 체계를 완전히 대표하진 못하지만 충분히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많은 대학들이 이미 동맹에 참여하며 잠재적인 지원자 풀이 작아졌고, 집행위원회가 규모가 큰 동맹에 대한 지원을 늘렸으며, 또한 파트너를 모색할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
- 동맹의 구성은 점차 다양해져야 하며, 포용적으로 모든 유형과 규모의 고등교육기관이 이에 참여해야 할 것임

- 규모가 큰 기관들이 자원을 공유하며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중·동부 유럽 기관의 경우, 내재적 거부감과 장기적인 자금에 대한 불확실성, 두뇌유출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음
- Lambrechts는 “포용은 EU의 핵심 개념이며, 어떠한 형태의 공공 자원이라도 유럽의 전체 교육 체계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동맹은 참여기관의 이익이 아닌 유럽의 전체 고등교육 체계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임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universities/excellence-vs-cohesion-whats-goal-european-university-alliances>>

5 그리스, Horizon Europe 참여확대국 중 참여 최상위 기록(3.6)

- 그리스는 Horizon Europe에서 참여확대국 중 참여도 최상위권을 차지, 전체 EU 회원국 중에서도 7위로 매우 높은 순위에 위치
 - Horizon Europe 15개 참여확대국 상위 10개 참여기관 중 그리스의 기관이 6개를 차지함
 - EU의 참여확대정책은 연구혁신 성과가 저조한 국가와 유럽 선도국간의 참여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
 - 이를 통해 Horizon Europe에서 참여확대국의 참여도 및 수혜받는 보조금이 증가
 - 15개 참여확대국은 HE에서 EU 지원금 전체의 13.4%에 해당하는 40억 9천만 유로를 지원받았으며, 이는 Horizon 2020보다 9.46% 증가한 수치
 - HE에서 참여확대국은 전체의 36%인 총 3,788개의 협약을 체결, 이는 Horizon 2020보다 24.3% 증가
 - 하지만 참여확대국과 유럽선도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선도기관인 프랑스의 국립과학연구원(CNRS)은 그리스의 헬라스연구기술센터(CERTH)의 5배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음
- 그리스에서는 헬라스연구기술센터(CERTH)가 가장 많은 Horizon Europe 연구비를 받아 참여기관 1위를 기록

- CERTH는 에너지, 환경, 컴퓨팅, 농업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에 주력하고 있으며, 1억 유로 이상의 EU 보조금을 받음
 - CERTH 이사회 의장은 다수의 유럽 연구혁신 프로젝트 참여 경험을 기반으로 제안 실패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EU 정책목표에 정통하고, 시행 과정에서의 위험을 평가하고, 프로젝트의 예상 파급효과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
- CERTH에 이어 그리스과학기술재단(FORTH)이 HE 참여 2위를 기록
- FORTH는 CERTH와 유사하게 EU 보조금 획득에 집중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 사무소를 두어 연구 기관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기술이전 부서인 PRAXI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과학자들이 연구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
 - FORTH 의장은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실존적 노력이 필요하며,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상당한 인내와 끈기,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
 - 참여확대국이 유럽에서 의미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높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
- 그리스 이외의 참여확대국 중 에스토니아의 타르투 대학이 6번째로 Horizon Europe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획득
- 에스토니아는 EU 보조금 획득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6년간 국제 R&D 자금을 증가시키는 데 중점을 둠
 - 타르투 대학도 '18년 설립된 보조금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유럽연구위원회(ERC) 지원금과 ERC 보조금 수혜자에 대한 추가 보조금 등 다른 재정 및 행정 지원 서비스를 도입
 - 타르투 대학 보조금 사무소 책임자인 Rutiku는 정부가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을 1%로 증가시키고, 인프라 투자를 증가시키며, 국제 R&D 협력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
 - Rutiku는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와 대학들은 각자의 성공을 위한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어떤 모델도 복제할 수 없다. 그러나 명확한 중점과 목표를 설정하고 강력한 지원 서비스를 설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예견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함

- Horizon Europe 참여확대국에서 가장 많은 연구비를 받은 기관은 다음과 같음:

#	기관	국가	만 유로
1	The Centre for Research and Technology Hellas (CERTH)	그리스	10,000
2	The Foundation for Research and Technology - Hellas (FORTH)	그리스	6,820
3	Aristotle University of Thessaloniki	그리스	6,800
4	Institute of Communication & Computer Systems (ICCS)	그리스	6,140
5	National Technical University Of Athens	그리스	5,800
6	University of Tartu	에스토니아	5,170
7	University Of Patras	그리스	4,780
8	NOVA University Lisbon	포르투갈	4,720
9	Masaryk University	체코	4,340
10	University of Ljubljana	슬로베니아	4,320
11	University of Coimbra	포르투갈	4,280
12	University of Cyprus	사이프러스	3,790
13	Athena Research & Innovation Center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 Knowledge Technologies	그리스	3,310
14	FundingBox	폴란드	3,240
15	National and Kapodistrian University of Athens	그리스	3,210
16	Kemijski inštitut: National Institute of Chemistry	슬로베니아	2,950
17	National Centre For Scientific Research Demokritos	그리스	2,910
18	University of Warsaw	폴란드	2,890
19	Jožef Stefan Institute	슬로베니아	2,490
20	Jagiellonian University	폴란드	2,400

<출처 : <https://sciencebusiness.net/news/horizon-europe/greece-dominates-horizon-europe-funding-success-among-widening-countries>>

6 EU 이사회, 집행위에 스위스와 미래 관계에 대한 협상권한 부여(3.12)

- EU 이사회는 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을 대신하여 향후 유럽연합-스위스 관계의 기반이 될 광범위한 조치를 협상하도록 승인
 - 협상의 목적은 EU와 스위스 간의 양자 관계를 현대화하고 심화시키는 것으로, 내부 시장에서 운영되는 각 기업 간의 경쟁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고, 다른 회원국 시민 간의 차별 금지를 포함하여 스위스에 있는 EU 시민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함
- 이 조치 패키지는 Horizon Europe을 포함한 EU 프로그램에 스위스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을 포함하며, 그 사이 과도기적 조치가 취해질 예정
 - 예를 들어, 유럽연구위원회(ERC)의 2024년 공고에 따라 스위스에 설립된 법인은 협상이 시작되면 ERC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유럽연합 프로그램에 대한 가입 협약이 시작되면 과도기적 합의는 Horizon Europe 워크프로그램 2025에 다른 공고로 확장될 예정
 - 이에 따라 스위스 기업은 협회가 발효되면 자금을 받을 수 있음
- 첫 번째 공식 협상은 3월에 열릴 예정으로, 패키지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협상은 동시에 진행

<출처 :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03/12/eu-switzerland-council-adopts-mandate-for-negotiations-on-future-relationship/>>

7 유럽보건데이터공간(EHDS) 협상, 주요 걸림돌은 보건 데이터 공유에 대한 환자 동의(3.12)

- 유럽선거 이전에 유럽보건데이터공간(EHDS)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의 회담이 지속되고 있음
 - 제안된 법안은 개인의 보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보건 데이터의 국경 간 공유와 연구 및 정책 입안에서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EU 협상가들은 올 여름 유럽 선거 전에 EHDS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최종 시도를 위해 3월 13일 목요일에 다시 회담을 진행할 예정
 - 지난 7일 목요일 의회와 이사회 간 회담은 금요일 오전 4시에 아무런 합의 없이 종료
- **주요 결립들은 연구혁신을 포함하여 소위 2차 사용을 위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와 관련됨**
- 유럽의원은 집행위원회의 원래 제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옵트아웃 (opt out) 가능성을 개인에게 제공하기를 원함
 - 이에 대해 EU 이사회는 특히 공중 보건 연구를 수행하는 공공 기관과 같이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옵트아웃 메커니즘에 예외를 추가하여 최종 결정을 회원국에게 넘길 것을 제안
 - 유럽의회 일부 정당은 (데이터 공유) 동의에 대한 엄격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면 환자의 이익보다는 수익을 우선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 **EHDS는 연구자들에게 대량의 (익명화된) 보건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유럽대학병원연합(EUHA) 사무총장은 “EHDS는 새로운 치료법, 새로운 진단법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치료법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는 측면에서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엄청난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함
- **여러 이해관계자 그룹은 데이터 편향의 상당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며 옵트아웃 메커니즘에 반대**
- EUHA 사무총장은 “우리 데이터 보유자에게는 시스템 설정 측면에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엄청난 추가 부담이 된다”며 옵트아웃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하며 만약 시행될 경우 “환자들에게는 처음에만 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임
 - 또한, 사무총장은 “특정 인구 집단에서 옵트아웃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되면 이는 편견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에는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많은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며 데이터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

- 여러 이해관계자 그룹은 회원국의 데이터에 ‘인증 및 빈곤층을 포함한’ 특정 인구를 포함시키는 복잡성을 언급하며 많은 건강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데 거의 관심이 없다”고 경고

○ **EHDS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회원국 간의 조화가 중요**

- EUHA 사무총장은 현재 GDPR과 의료기기규정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고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한 작업을 포기하고 생명공학 및 의료기술회사가 해외로 옮기고 있다고 언급
- 의료 혁신 기업은 특정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채택할 경우 특히 국경 간 협업과 데이터 공유가 필요한 연구 프로젝트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의료 영상, 방사선 치료 및 건강 ICT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인 COCIR의 디지털 건강 수석 관리자 Goedecker는 “회원국 수준의 다양한 조건은 분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화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말함

○ **지난 2월 35개 보건 이해관계자 조직은 협상 중에 다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고 우려를 포함**

- 이들은 EHDS가 규칙을 조화시키고 GDPR을 포함한 다른 법적 프레임워크와의 상호 작용을 명확히 하며 과도한 데이터 현지화 제한을 피해야 한다고 언급
- Goedecker는 지식재산권(IP) 보호도 기존 제안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아 “EU가 전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함
- 무역 협회 MedTech Europe의 디지털 건강 담당 이사는 2차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 보건 데이터 범주의 범위도 명확해야 한다고 말함
- 그는 현재 데이터 유형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는 모호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EHDS 범위에 장치 생성 데이터가 포함될 수도 있다”고 경고
- 이는 연결된 의료기기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대량의 데이터를 포함하면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
- 업계와 연구 기관은 의사결정자들에게 서둘러 문서를 검토하기보다는 남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을 촉구

- EHDS 법이 제정되면 완전히 시행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집행위원회는 2년의 이행 기간 후 데이터 등록에 5~7년을 허용하기를 원하지만 유럽의회는 더 짧은 전환 기간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대해 EUHA 사무총장은 최근까지 병원이 유럽 수준의 규제를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았으므로, “필요한 전문지식을 확립하고 습득하는데” 유연하고 연장된 전환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함

<출처 : <https://sciencebusiness.net/news/data/proposal-health-data-access-research-falters-over-patient-consent>>

8 우크라이나 과학 인프라 시설 피해 비용 12억 달러 초과(3.12)

- 유네스코 보고서는 러시아의 침공이 과학자, 연구 기관 및 과학 장비에 미친 영향을 강조
 - 유네스코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의 공공 과학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은 12억 6천만 달러(11억 5천만 유로)에 달함
 - '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은 우크라이나의 과학기관, 특히 대학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유네스코는 추가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유네스코 사무총장인 아줄레이는 “과학계의 상황이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의 그들의 연구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함
- 지난 2년 동안 177개 기관과 연결된 총 1,443개의 건물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었으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 지역에 있음
 - 하르키프시에 있는 야로슬라프 무드리 국립법학대학은 건물 수리에만 거의 1억 2천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
 - 게다가 손상된 과학 장비를 복원하거나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4,500만 달러에 달함
 - 베르단스크 주립 교육 대학의 Lyman 교수는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매주 연구 인프라에 새로운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모든 과학 인프라를 복원하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자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

- 예를 들어, 하르키우 국립대학교는 최근 한 건물이 포격으로 날아간 후 창문 교체를 완료했는데, 또 다른 미사일이 다른 창문을 타격함
- 유네스코 보고서가 지적하는 구조적 피해 외에도 과학과의 전쟁으로 인한 실제 비용은 훨씬 더 광범위할 것으로 보임
 - 베르단스크가 러시아 점령 하에 있는 동안 베르단스크 주립 교육 대학은 일시적으로 자포리자 시로 이전되어, Lyman 교수는 수년 동안 연구를 위해 의존해 온 기록보관소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구에 대한 접근방식을 바꿔야 했음
 - 룬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연구원이자 Lyman 교수와 함께 유네스코 보고서에 정보를 제공한 Moskovko는 우크라이나 과학계가 입은 무형의 피해를 해결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
 - 그녀는 “유네스코의 보고서가 자행되는 잔혹행위의 유형에 대해 더 많은 가시성을 제공하기를 바란다.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은 민간 인프라이며, 이는 우크라이나를 번영시키고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파괴하려는 러시아의 전략이다”라고 말함
- 보고서는 또한 4,887명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이주하고, 5,542명이 해외로 이주하는 등 우크라이나 과학자들의 엄청난 이주를 강조
 - 게다가 국가의 과학 예산은 '21년 20억 달러 이상에서 '22년 약 12억 달러로 대폭 삭감됨
-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의 과학자들과 강제로 국가를 떠나야 했던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
 - 지난해 12월 유럽혁신위원회(EIC)는 스타트업을 위한 2천만 유로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출시하였으며,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는 키이우에 스타트업 지원 허브를 개설
 - 또한, 키이우에는 연구원과 기업가가 유럽연합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Horizon Europe 사무소가 개설되는 등 ERA4Ukraine, Horizon4Ukraine 및 ERC4Ukraine과 같이 이전에 출시된 계획을 보완함

- 더하여 지난달 EU가 합의한 500억 유로 규모의 지원 패키지에는 인프라 재건과 신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이 포함
-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EU의 지원은 매우 좋은 일이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산발적이었다고 지적
 - 우크라이나 연구자들의 곤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Science at Risk를 공동 창립한 Chernivtsi 국립대학교의 일반 화학과 책임자인 Yuriy Khalavka는 EU의 지원에 감사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산발적이었다고 주장
 - Khalavka는 “아직 부족한 것은 일종의 현명한 접근방식이다”라고 언급하며 지금까지 과학 인프라 복원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었다고 말함
 - 동시에 그는 EU가 우크라이나 과학자들에게 제공한 안정적인 기회를 인정하며 “조금 느리더라도 몇 년간 지속된다는 사실이 심리적으로 큰 힘이 된다”고 덧붙임
 - Moskovko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EU 간에 더 많은 대화가 있다면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고 언급

<출처 : <https://sciencebusiness.net/news/international-news/cost-damage-ukraines-scientific-infrastructure-over-12b-and-growing-every>>

2.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1 집행위, 유럽의디지털10년 주요성과 팩트시트 발간(3.8)

- 동 팩트시트는 현 집행위원회 행정부의 디지털 어젠다에 따른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를 요약
 - 동 팩트시트는 슈퍼컴퓨터, 반도체,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사이버보안, 플랫폼 등 주요 디지털 분야에서의 주요 입법 성과를 정리

<출처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FS_24_1392>

2 집행위 DG RTD, 에너지 부문의 성균형을 위한 평가 보고서 발간(3.8)

- 집행위 연구혁신총국(DG RTD)의 새 보고서는 에너지 부문의 성별 균형을 평가하고 포용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
 - [보고서](#)에 따르면 EU 에너지 기업 내 여성비율은 25%만을 차지
 - 연구혁신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평균 22%로 EU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나타남
 - 보고서는 최소한의 성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EU 에너지 부문에 20만 명의 여성 인력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예상
 - 보고서는 여성을 위한 STEM 경력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효과적인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권장사항을 제공

<출처 :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gender-balance-ri-field-improve-role-women-energy-transition-2024-03-08_en>

3 유럽대학연합(EUA), 박사후연구원을 위한 프로필, 역할 및 제도적 지원에 대한 보고서 발표(3.11)

- 유럽대학연합(EUA)은 '유럽 대학의 박사후 연구원: 프로필, 역할 및 민간 기관 지원 구조'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는 박사후연구원이 유럽 고등교육에 중요한 공헌자이며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 및 사회적 참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
- 이들의 귀중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임시 또는 단기 계약, 높은 업무량, 재정적 불안 등의 문제가 업무와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유럽에서 박사후연구원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움
-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유럽 대학은 학계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다양한 취업 기회를 탐색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박사후연구원을 양성하기 위해 기관 수준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동 보고서는 박사후 과정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기 위해 '23년에 설립된 '박사후연구원을 위한 프로필 및 제도적 지원'을 간략하게 설명
 - 이는 유럽 16개국 28개 대학에서 수집한 결과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박사후 과정 커뮤니티를 위한 기존의 제도적 지원을 다루고, 새로운 전략을 논의하며, 모범 사례의 예시를 제공하고, 박사후 과정 경험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

<출처 : <https://eua.eu/resources/publications/1110postdoctoral-researchers-at-european-universities-profiles-roles-and-institutional-support-structures.html>>

4 KOTRA 브뤼셀 무역관, EU 반도체 산업 및 규제 동향 발간(3.13)

- KOTRA 브뤼셀 무역관은 산업시리즈의 일환으로 EU 반도체 산업 및 규제 동향 분석을 제공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EU 반도체 산업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개요 • 반도체 산업의 구조 • 반도체 산업 내 EU의 위치 및 업계 반응
유럽 반도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반도체법(EU Chips Act) • 불화가스(F-gas) 규제 개정안 • 과불화합물(PFAS) 규제(안)

<출처 : <https://quickest-mask-231.notion.site/EU-cfc7918155d74065b0b58ec508635708>>

3. EU 주요 연구성과

1 [성공사례] 유럽 오페라에 새로운 목소리를 불어넣는 이민자와 재소자들

- TRACTION 프로젝트는 공동 창작과 기술력을 통해 저소득층 지역부터 교도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커뮤니티를 참여시켜 오페라를 더욱 포용적으로 만듦
 - 유럽은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오페라는 유럽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중 하나
 - “유럽 문화유산의 초석인 오페라는 항상 계급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말하며, 권위와 혁명을 모두 표현해왔다”(Vicomtech 디지털 미디어 국장)
 - 안타깝게도 최근 수십 년 동안 한때 초월적이었던 이 예술 형식은 대중적인 뿌리와 급진적인 면모를 잃어버림
 - “문화는 우리들을 하나로 묶는 것인데, 최근들어 종종 오페라가 불평 등의 상징으로까지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우려스럽다.”(Zorrilla)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RACTION 프로젝트는 오페라를 더욱 포괄적으로 만들기 시작
 - “오페라는 자신이 소외되었다고 생각하고 들여다보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페라는 스스로 갱신하고 에너지, 공명, 마음을 재발견하여 다시 한번 유럽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Zorrilla)
- TRACTION 프로젝트는 새로운 기술과 공동 창작을 통해 전통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단순히 오페라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작 과정에 참여시킴
 -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는 아일랜드 국립 오페라와 협력하여 세계 최초의 가상 현실 기반 오페라를 제작
 - Iris Meain에 거주하는 아일랜드어 사용자, 외딴 지역의 청소년,

Tallaght 및 Souht Dublin 성인들이 함께 제작한 이 오페라는 가상 현실 헤드셋을 사용하여 경험하도록 설계됨

- 프로젝트는 이 독특한 형식을 통해 일반적으로 이러한 예술 형식에 접근할 수 없는 아일랜드 일부 지역에 오페라를 공급함
- 프로젝트는 포르투갈의 독립 음악 학교인 SAMP와 협력하여 포르투갈 레이리아에 위치한 레이리아 청소년 교도소의 젊은 재소자들과 함께 커뮤니티 오페라를 공동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줌
 - 전문 예술가와 재소자, 재소자 가족 및 친척, 교도소 직원이 참여하여 함께 O Tempo를 작사, 작곡하였음
 - 이 공연은 재소자들이 공연하는 교도소 내부 무대와 지역 강당의 메인 무대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모두가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Traction 공동 창작 공간 도구를 통합하고 테스트하는 기회가 되었음
- 이 프로젝트는 소외될 위험이 있는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고 변화시키기 위해 오페라를 이러한 지역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창의적인 플랫폼으로 사용
 -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라발 지역의 경우, 전설적인 175년 역사의 리세우 오페라 하우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인종적 다양성이 특징인 동네임
 - TRACTION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라발에서의 삶에 대한 오페라를 작곡하고 상연
 - La Gata Perduda라고 불리는 이 오페라는 동네 아마추어 합창단이 참여했으며, 작품의 시각적 브랜딩, 세트, 의상 디자인 등 다양한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
 - 이 커뮤니티 오페라의 두 차례 공연은 모두 매진되었음
- 전반적으로 TRACTION 프로젝트는 5시간 분량의 새로 작곡된 음악과 함께 1,300명 이상의 비전문 예술가와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11개의 오페라 공연을 선보임
 - 이 오페라를 직접 감상한 사람은 8,000명 이상이었으며, 원격으로 참여한 사람은 766,000명 이상에 달함

- 그러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러한 쇼가 관련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주최측은 말함
- 한 출연자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동안 진정한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라고 말했으며, 다른 출연자는 “나는 노래하는 법이 아니라 내가 노래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경험을 전달함
- 이 프로젝트는 도구, 기술 및 학습한 교훈을 모아 다양한 예술적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웹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리소스를 무료로 제공

TRACTION

- 기간 : 2020.01.01.~2022.12.31.
- 예산 : 약 375만 유로 (EU 지원 100% 유로)
- 총괄 : FUNDACION CENTRO DE TECNOLOGIAS DE INTERACCION VISUAL Y COMUNICACIONES VICOMTECH (스페인)

<출처 : <https://projects.researchandinnovation.europa.eu/en/projects/success-stories/all/immigrants-and-prisoners-bringing-new-voices-european-opera>>

<Traction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hannel/UGVGLsEuf_Q60-4yqY85qmQ?view_as=subscriber>

2 [연구모음]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문화와 문화유산 보존

- 지속가능한 문화 관광은 문화유산과 지역 공동체를 의사 결정 과정에 두어 좋은 보존 관행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동시에 방문객에게 진정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문화 관광 시장은 유럽 전체 관광의 거의 40%를 차지하며, 문화 관광객은 방문하는 목적지에서 다른 유형의 관광객보다 하루에 38%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22%더 오래 머물고 있음
 - 유엔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문화 관광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유럽의 주요 시장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
 - 문화 관광은 특정 목적지를 발견하고, 경험하고, 배우고자 하는 방문객의 열망으로 특징지어지며, 최근 음식 투어, 외딴 시골 마을 생활, 순례길 여행 등 문화 활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 따라서 점점 많은 관광객이 특정 장소 및 문화와 연결되는 보다 개별적이고 진정한 경험을 찾고 있음
 - 다시 말해 이들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관광 명소, 제품 및 활동을 찾고 있음
- 이러한 형태의 관광은 지역사회에 수입원을 창출하며, 결과적으로 유럽의 시골 지역과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원, 강화 및 유지하는 등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을 도움
 - 그러나 여행지가 점점 더 인기를 끌면서 무분별한 단체 관광은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 인구 과밀, 소음 및 오염 수준 증가, 건축 환경 손상, 주민 생활 방식 붕괴로 인해 여행지의 가치와 고유한 특성이 사라질 수도 있음
 - 따라서 문화 관광의 성공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데 달려 있음
 - 따라서 문화유산, 관광 활동,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순환 관광 접근방식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는 관광 사업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음

- 이는 전반적인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폐기물 감소, 자원 보존, 친환경 운송 및 지역 제품 지원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음
 - 관광 부문 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업계가 적응하고 번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혁신이 매우 중요
 - EU의 연구혁신의제는 문화 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문화 관광을 촉진하는 새로운 지식과 실증적인 솔루션을 생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동 연구모음은 유럽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문화 관광으로 전환하려는 EU의 의지를 보여주는 8개의 Horizon 2020 프로젝트를 소개**
- 이는 문화유산을 재생하고 가치를 평가하며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기업 활동의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문화 관광의 잠재력을 탐구
 - 이 연구모음은 정책입안자가 문화 관광을 더 잘 이해하고 실제적인 증거에 기반한 정책 옵션을 개발하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최신 연구 결과에 대한 더 큰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또한 문화 관광 실무자가 최신 연구를 기반으로 자신의 활동을 미세 조정하고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새로운 도구와 솔루션을 테스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동 연구모음은 문화 관광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통찰력을 제공하고 이러한 형태의 관광이 제공하는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① [Be.CULTOUR](#)

유럽의 외딴 시골 및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에 초점을 맞춰 순환 관광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보존하며 친환경 교통수단을 장려하고 지역 제품을 지원

- 기간 : 2021.02.01.~2024.06.30.
- 예산 : 약 410만 유로 (EU 지원 약 400만 유로)
- 총괄 : CONSIGLIO NAZIONALE DELLE RICERCHE(이탈리아)

② IMPACTOUR

문화 관광이 지역 유럽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과 도구를 개발

- 기간 : 2020.01.01.~2023.06.30.
- 예산 : 약 300만 유로 (EU 지원 100%)
- 총괄 : UNINOVA-INSTITUTO DE DESENVOLVIMENTO DE NOVAS TECNOLOGIAS-ASSOCIACAO (포르투갈)

③ INCULTUM

낙후된 지역의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 문화, 경제 개발을 위한 지속가능한 상향식 전략을 추구

- 기간 : 2021.05.01.~2024.04.30.
- 예산 : 약 375만 유로 (EU 지원 약 350만 유로)
- 총괄 : UNIVERSIDAD DE GRANADA (스페인)

④ RurALLURE

유럽의 역사적인 순례길을 따라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관심사항에 따라 여행 일정을 맞춤화되고 주변 문화 및 자연 유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 기간 : 2021.01.01.~2023.12.31.
- 예산 : 약 300만 유로 (EU 지원 100%)
- 총괄 : UNIVERSIDAD DE VIGO (스페인)

⑤ SmartCulTour

6개 현장 연구소에서 현장 테스트를 실시, 특히 농촌 외각 지역과 도시 번두리 지역에서 공동으로 창출한 지속 가능한 관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 기간 : 2020.01.01.~2023.06.30.
- 예산 : 약 300만 유로 (EU 지원 100%)
- 총괄 :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벨기에)

⑥ SMARTDEST

관광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 수행, 지역에 목소리를 내고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경제 모델에 기여하기 위해 8개의 도시 연구소를 설립

- 기간 : 2020.01.01.~2023.09.30.
- 예산 : 약 300만 유로 (EU 지원 100%)
- 총괄 : UNIVERSITAT ROVIRA I VIRGILI (스페인)

⑦ [SPOT](#)

새로운 형태의 문화 관광을 탐구, 지역 주민들이 귀중한 문화 자산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식별하고 전략을 개발

- 기간 : 2020.01.01.~2022.12.31.
- 예산 : 약 300만 유로 (EU 지원 100%)
- 총괄 : MENDELOVA UNIVERZITA V BRNE (체코)

⑧ [TexTOUR](#)

지역사회가 지역 유산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기 위해 유럽 및 기타 지역의 빈곤 지역에서 8개의 문화 관광 시범 사업을 실시

- 기간 : 2021.01.01.~2024.09.30.
- 예산 : 약 400만 유로 (EU 지원 약 380만 유로)
- 총괄 : FUNDACION SANTA MARIA LA REAL DEL PATRIMONIO HISTORICO (스페인)

<출처 : <https://cordis.europa.eu/article/id/449507-cultural-tourism>>